



일본의 기업성 부모 간병보험 개발 확대

이상우 수석연구원

연구

일본 정부는 간병인구 증가에 따라 부모 간병으로 직장에서 퇴직하는 ‘간병퇴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간병퇴직 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일본 손해보험회사들은 정부 정책과 간병 수요 확산에 대비하여 기업이 보험료 일부를 부담하고 최대 30%까지 보험료 할인이 가능한 종업원 부모간병비용보장보험의 단체상품을 개발하고 최근 대형사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음. 일본 보험업계는 이러한 보험상품 제공이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고 기업의 인재 유출을 예방하는 등 경제적 손실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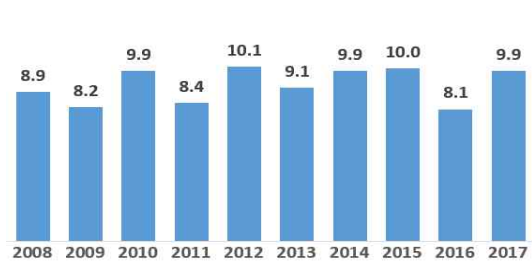
- 최근 일본의 손해보험회사들은 종업원이 부모 간병으로 인하여 직장을 그만두는 ‘간병퇴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기업이 일부 보조하는 방식의 부모 간병비용보장보험을 단체상품으로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판매하고 있음
- 일본은 <그림 1>과 같이 고령자 간병인구 증가에 따라 부모를 간병하기 위하여 직장을 그만두는 직장인이 <그림 2>와 같이 한해 약 10만 명, 10년간 약 92만 명이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총무성(2018)에 의하면 간병퇴직자 대부분이 여성(80% 비중)과 40세 이상(90% 비중)인 것으로 나타남
- 간병퇴직 시 종업원에게 소득 감소와 경력단절 문제가 발생하고, 기업 입장에서도 생산성이 높은 중고령 종업원이 퇴사할 경우 인력유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그림 1> 일본 고령자수와 간병 인정자 수 추이



자료: 内閣府(2018), 高齢社會白書

<그림 2> 일본 간병퇴직자 수 추이(만 명)



자료: 総務省(2018. 7), 平成29年就業構造基本調査結果

- 경제산업성(2018)에 의하면 부모 간병퇴직으로 인한 개인의 소득감소액 약 2,700억 엔을 포함한 전체 경제적 손실이 연간 6,500억 엔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함

■ 이에 일본 정부는 부모 간병으로 퇴직하는 취업자의 경력단절과 소득감소, 기업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안을 제정하는 등 ‘간병퇴직 제로’ 정책을 2015년에 추진한바 있음

● 주요내용은 ‘일과 간병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간병휴가·휴직제도 확대 및 활성화, 근무시간 단축, 야근 제한, 간병휴직 기간 중 고용보험 지원, 기업의 세제지원, 기업 내 세부적인 실천 매뉴얼 확충 등임

■ 일본 손해보험회사들은 이러한 정부의 정책과 수요 확대에 따라 기업의 종업원 복리후생제도로써 종업원의 부모 간병비용을 보장하는 단체보험을 특약상품이나 주보험상품으로 개발하여 최근 판매를 확대하고 있음

● 손보재팬¹⁾은 기존에 기업이 가입한 단체의료보험에 부대하여 부모 간병비용을 보장하는 특약상품²⁾을 처음으로 개발하여 2015년부터 판매하기 시작함

- 동 상품은 가입을 희망하는 종업원을 대상으로 기존의 단체의료보험에 부대하여 추가로 가입이 가능하며, 부모 간병상태가 일정기간 계속 지속될 경우 보험회사가 최대 300만 엔의 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음

● 동 특약상품은 <표 1>과 같이 동경해상니치도화재, 아이오이닛세이손보 등 대형사 중심으로 최근 판매가 확대되고, 미즈이스미토모해상의 경우 부모 간병휴직 소득보장보험을 특약상품으로 2017년에 판매함

<표 1> 일본 손해보험회사의 부모 간병비용보장보험 특약형 개발사례

회사명	피보험자	보험금 지급 요건	보험가입금액
손보재팬	종업원의 부모님 (40~79세, 89세 가능) ^{주)}	간병보험 2등급이상, 90일간 지속	100~300만 엔
동경해상니치도화재	종업원의 부모님 (40~84세, 89세 가능)	간병보험 3등급이상	100~300만 엔
아이오이닛세이손보	상동	간병보험 3등급이상, 90일간 지속	50~500만 엔
미즈이스미토모해상	상동	상동	상동

주: 40~79세까지 신규 가입 가능(단, 89세까지 계약갱신 가능)
자료: 日本經濟新聞(2016. 6. 25)

■ 2018년 10월부터는 손보재팬이 종업원 부모 간병비용보장보험을 일본에서 처음으로 단독상품³⁾으로 개발하여 기업에게 제공하기 시작함

1) 손보재팬(損害保険ジャパン日本興亜)은 일본 내 2위를 차지하는 손해보험그룹으로 일본내 2위의 간병 자회사를 통해 간병 서비스와 노인휴, 간병거주 시설 등의 간병사업에 적극 진출하고 모회사 보험상품과 시너지 효과를 추진하고 있음
2) 상품명은 介護サポートプラン(간병지원 플랜)임
3) 상품명은 親子のちから(부·자의 힘)임

- 동 상품은 기업이 보험계약자가 되어 가입을 희망하는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가입하여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납입하고, 부모 간병으로 종업원에게 비용이 발생할 경우 보험회사가 종업원에게 급부금을 지급하는 구조임
 - 보상대상자는 종업원 부모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중에서 종업원이 선택할 수 있음
 - 주요 보장내용은 간병서비스와 간병시설 이용료 등 자녀가 부모 간병에 실제로 부담한 간병비용을 최대 1,000만 엔까지 보장함
- 동 상품의 주요 특징은 단체계약으로 보험료 할인 적용, 기업의 종업원 부담 보험료 일부 지원 설계, 보험회사의 다양한 간병서비스 및 입주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음
- 보험료 수준은 가입자 1천 명 이상일 경우 단체계약 적용으로 보험료가 최대 30% 할인(기타 할인 포함) 되어 보험가입금액 300~1,000만 엔의 경우 월 납입액이 2,000~4,920엔 수준임
 - 보험료 부담은 종업원 급여에서 매월 원천징수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종업원 복리후생제도로써 보험료 일부를 부담하고 있음
 - 동 상품의 부가서비스로 손보재팬 자회사 등이 제공하는 방문간병, 재가서비스, 배식대행·가사대행·안전·안부확인 등 재택형 간병서비스와 유료노인 홈 등 입주시설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음
- 일본은 최근 간병휴가·휴직제도를 활성화하고 간병휴직급여제도를 도입하는 등 자녀의 부모 간병을 자녀출산과 동일선상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초고령 사회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어 간병인구가 증가하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큼
- 일본 보험업계는 부모 간병보험상품 제공 확대가 종업원의 부모 간병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기업에게 중도 퇴직으로 인한 종업원 인재유출을 예방하여 간병퇴직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kiri](#)